

## 공회전하는 예술 앞에서 침묵

April, 2017 | 김정아 기자

### 공회전하는 예술 앞에서 침묵

안규철 : 당신만을 위한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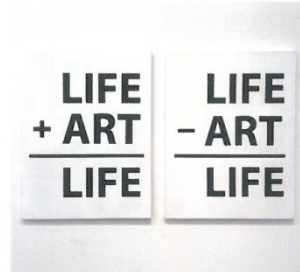
2.21-3.31  
국제갤러리 K1

글 | 김정아 기자

사물을 통해 세상의 구조와 원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안규철 작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장기간 열렸던 전시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로 그의 작업은 꽤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다. 작가의 '사물들이 갖는 메커니즘의 부조리함은 각 작품이 이끄는 어떤 사건들에 의해 전시장에서 불확정적인 상황과 결말을 연출한다. 이번 국제갤러리의 전시장에서도 역시나 어떤 사건은 일어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정해진 궤도를 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구르는 공이 있고, 거울이 정해진 각도로 공간을 가로지르는 빛이 있다. 중력과 광학적 원리가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안 그것들은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할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물며 이들 '사물들이 하는 일은 대략 낭패감을 안겨주기까지 한다. 의자는 배를 짓지 못하고, 상자 속 바퀴들은 구를 수 없고, 종은 소리를 낼 수 없으며, 양은 맹수가 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어디로든 갈 수 없고, 무엇도 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전시장을 둘러보면 나는 '사물들이 나 자신일 수도 있겠다'는 착나의 병에 급기야 미간이 찌푸려졌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전시에서 작가는 자신이 공모한 사물과의 사려 깊은 대화를 통해 타자 혹은 예술과의 관계, 그 의미를 발화하지 않았던가. 사소한 아름다움으로 사물의 뒷면을 통찰했던 그가 이제는 인생에서 빠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 예술이 아닌 지 노골적으로 묻고 있으니, 조금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었다.

안규철 작가는 '작가로서의 독자, 독자로서의 작가'로 칭해지며 혼성적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은 바 있다. 경계에서 내는 그의 이중적 목소리가 이번 전시에서 유독 또렷하게 들렸다. 중견작가로서 그는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어떤 형식적 제스처를 버리고, 주위의 의미들을 찾아 독자들의 자리를 둘러한다. 반면 독자로서의 그는 점차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물의 뒷면, 작가 자신이 '세계의 거대한 유실물 보관소'라고 표현했던 거대한 심연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이 심연은 인생/예술이 하는 모든 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며, 진실과 거짓 너머의 영원한 침묵으로 이어지는 통로일지도 모르겠다. 그 통로에서 작가이자 독자로서 던지는 안규철의 질문 'LIFE+ART=LIFE / LIFE-ART=LIFE'를 다시금 곱씹어보니 불현듯 다른 생각이 들었다. 작가는 왜 지금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이 이처럼 어려운데 미술이 쉽게 세상을 얘기할 수 없고, 삶이 변하지



안규철, 《Life》, 캔버스에 아크릴, 각 53x41cm, 2017 © 김정아

않는데 예술만 쉽게 변할 수는 없다. '당신만을 위한 말'이라는 조각 극장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연극은 실없는 농담같이 가벼이 던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맨날 해봐야 헛수고인 일들을 이야기한다. 삶 속에서 예술의 의미가 이렇게 하찮은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을 잃고 말 것이다. 침묵이 아니라 실어증에 걸릴 것이다. 하지만 예술이 이처럼 텅 빈 기호로 우리 삶의 초라함을 은폐해 되는 건지, 삶의 의미를 죽이고 예술만 살아남아도 되는냐고 물었을 때, 과연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가장 얇고 가장 가벼운 세계의 표피만을 보여주는 이 예술이 '침묵'의 이름으로 공회전하길 바란다. 이것이 친애하는 (안규철의) 독자로서 내가 포할 수 있는 예술에 대한 최소한의 경의이다.



《당신만을 위한 말》 전시 전경  
이미지 제공 : 국제갤러리